
About the Concert

화려하면서도 깊이 있는 정통 독일 사운드의 명문악단
뉴욕 타임즈가 극찬한 '천재 지휘자' 카렐 마크 시송이 이끄는 그들이 온다!

독일을 대표하는 방송 교향악단의 하나로 전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이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인 영국의 카렐 마크 시송과 함께 내한합니다.

2012년 첫 내한공연에서 베토벤과 브람스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지적인 음악성과 열정적인 무대로 관객과 평단의 고른 지지를 받았던 이들은 2014년 가을, 브람스의 교향곡 제 2번으로 깊이 있는 정통 독일 사운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테크닉과 뛰어난 통찰력이 빛나는 연주, 광범위한 레퍼토리로 음악가들과 관객들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선사하는 차이콥스키의 대표작 피아노 협주곡 제 1번은 깊어가는 가을에 더 없이 어울리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Program

지휘 | Karel Mark Chichon / 카렐 마크 시송

M. Glinka

글린카라벨

Opera <Ruslan and Lyudmila> Overture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P.I. Tschaikowsky

차이콥스키

Piano Concerto No.1 in bb minor, Op.23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bb단조 Op. 23

협연 : 손열음, 피아노

I. Allegro non troppo e molto maestro

- Allegro con spirito

II. Andantino semplice - Prestissimo

III. Allegro Con fuoco

Intermission

J.Brahms

브람스

Symphony No.2 in F Major, Op. 73

교향곡 제2번 F장조 Op.73

I. Allegro non troppo

II. Adagio non troppo

III. Allegretto grazioso (quasi andantino)

IV. Allegro con spirito

*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공연 당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file

현재 세계 지휘계를 이끌고 있는 젊은 지휘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휘자로 정평이 있는 카렐 마크 시송을 일컫어 뉴욕 타임즈는 한마디로 “천재 지휘자” 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1년 9월부터 도이치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위촉 받고, 세계의 이목을 또다시 집중시켰습니다.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겸 예술감독으로도 활약하며 역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갈 젊은 지휘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971년 영국에서 출생한 그는 영국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주세페 시노폴리와 발레리 게르기에프의 부지휘자로 활동하며 대가들의 면면을 익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최고의 베를린 도이치오페라극장, 뮌헨국립극장, 함부르크 국립오페라극장 등 다수의 유럽 최고의 극장에서 초청받고 있으며 로얄 콘서트 헤보, 베를린방송교향악단, 빈심포니, 잉글리쉬 챔버, 외에도 다수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객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 그라모폰과 음반출반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차세대의 젊은 지휘자로 한국에도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카렐 마크 시송 | 지휘
Karel Mark Chichon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쓸며 한국 국적으로 피아노 부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손열음은 일찍이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 없는 테크닉,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필 하모닉, 이스라엘 필하모닉, 체코 필하모닉, 바르샤바필 하모닉, 도쿄필하모닉, NHK 심포니, 예루살렘 심포니,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러시아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독일 라인가우 페스티벌, 바트 키싱엔 페스티벌, 폴란드 베토벤 부활절 페스티벌, 류블리야나 페스티벌, 미국 포틀랜드 피아노 인터내셔널, 뉴욕 인터내셔널 키보드인스티튜트 앤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하였습니다. 2012-13 시즌에는 발레리 게르기에프 지휘의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러시아, 슬로베니아, 한국 투어 및 시애틀 심포니, 크라코프 필하모닉,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구 USSR State Symphony), 리투아니아 국립 교향악단 등과의 협연 무대 등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또한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허바우, 독일 슈로스 엘마우, 중국 상하이와 쑤저우에서는 데뷔 무대를 가질 예정입니다.



손 열 음 | 피아니스트

독일 도이치 방송교향악단



유럽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독일의 4대 교향악단 중에 하나 !!

독일정부의 시책에 따라 2007년 서남부 독일교향악단을 대표한 SWR방송교향악단과 SR 방송교향악단이 합병하여 창단된 오케스트라로 SR와 SWR방송교향악단으로 활동 하였습니다. 115명의 단원과 예술감독으로 뮌헨국립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포펜에 이어 2011년부터 천재적 지휘의 대명사로 각광받는 카렐 마크 시송이 바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부뤼켄시와 카이저스라우턴시를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하며 독일전역은 물론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등 전 유럽을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칼스루헤, 마인즈, 에센,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퍼, 루드비히부르크축제 등 국제적인 음악 축제에 초청 받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일본순회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등의 성공적인 순회공연을 펼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폴란드 출신의 지휘자 타니슬라브 스크로바 체프스키의 지휘로 일본 5개 도시를 성공적으로 순회 공연했는데 이때 세계 정상급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훈이 이 오케스트라의 전신인 SWR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당시 정명훈은 좋은 평가를 받고 프랑스 바스티유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 발탁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레퍼토리를 끊임없이 초연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현대 작곡가 카를 시마노프스키, 에리히 볼프강 콘골드, 아람 하차투리안, 아리베르트 라이먼, 세르게이 하차투리안, 카롤린 위드만, 르노 카뤼송 등에게 위촉, 세계초연을 하고 있으며 ARD국영방송을 비롯 ARTE와 유럽의 라디오 클래식전문방송인 SR2, SWR2, HR2 등으로 유럽전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네 소피 무터, 안젤리카 키체라거, 줄리안 밴스와 같은 최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와의 협연은 물론 엘리나 가랑차, 요나스 카우프만, 안드레아스 솔, 치몬 바르토, 프란체스코 피에 몬테시 등의 세계적인 성악가, 피아니스트로 로버트 레오나르디, 에밀리오 포마르코, 유카페카 사라스테, 스타니슬라브 스크로바체프스키, 귄터 헤르비히, 미하엘 길렌 등의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 연주하였습니다. 더욱이 녹음작업에도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멘델스존, 차이코프스키, 브람스, 슈만 등의 교향곡시리즈는 독일 방송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음반으로 특히 브루크너 교향곡 시리즈는 최고의 음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과 프랑스 방송국 합동 작업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클래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2011/2012년 시즌부터 차세대 세계 클래식 계를 주도할 영국의 젊은 지휘자 카렐 마크 시송을 내세워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 문의 | 061.808.7000
www.yeulmaru.org